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수사 계속된다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최대집 회장 연이어 소환

박 시장 사망에도 민·형사재판 계속 진행가능해

극단선택을 한 고 박원순 서울 시장은 13일 영결식을 끝으로 가족의 곁을 떠나지만 고인의 아들 주진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015년 박 시장의 아들 주진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한 최대집 대한의사회회장(당시 의료혁신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5월22일과 2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15년 개인적으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 회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바로 불기소(공

소권 없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한 수사나 확인을 더 진행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진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관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을 병무청에 내 그해 12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진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주진씨의 해명 후에도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계속 제기됐는데 이들에 대한 민·형사재판 역시 박 시장의 사망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박 시장은 피해자일뿐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진 씨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박 시장의 아들 박주진씨는 상주 역할을 하기 위해 이날 오후 영국에서 귀국했다. 박주진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병역문제 의혹이 불거진 후 영국에서 머물러왔다.

문제가 없다. 민사재판도 비록 사건 당사자인 박 시장이 사망했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주진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모 동남권원자력과학기술원 핵의학과 주임교장 등 7명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한 정수진)가 4년 넘게 심리 중이다.

양씨 등은 2014년 6·4지방선거

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주진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 등에 대해 2016년 1심은 "박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씨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오유나 기자

천마산 정상서 70대 등산객 50m 추락사

11일 오전 10시경 경기 남양주시 천마산 정상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77)는 이날 지인과 함께 등산에 나섰다. 정상 근처 나무에 기대서 쉬던 중 절벽 아래로 50m 가량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중앙구조본부 헬기가 출동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8세아이 들이받고 밟고지나간 60대녀

60대 여성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8살 남자아이를 들이받고 멈추지 않은 채 쓰러진 아이를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A군은 온몸에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50분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2기구의 한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군을 B씨(60대 여성)가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B씨는 아파트단지로 진입하려고 전방에서 직진하다가 길을 건너던 A군을 치었다.

1차 충격 후 아이가 튕겨져 쓰러졌을 때 B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A군의 몸을 앞뒤 바퀴로 연달아 역차(壓過)했다.

소방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아이는 사고차량의 뒷부분에 쓰러져 있었다. 이 때문에 후진하다가 빗어진 사고로 와전되기도 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응수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춰야 했는데, 쓰러진 아이를 역차했다. 안타까운 사고다. 만약 아파트단지 내에서 벌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해야 할 사고로 그칠 뻔했다"고 설명했다.

기르던 개 삼으로 때린 60대 벌금형

3년간 기르던 개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자루에 넣어 삼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30일 오후 7시경 인천시 중구 한 노상에서 3년간 길러온 잡종견 '호동이'를 자루에 넣어 1m 길이의 삼으로 머리, 몸통 등을 수차례 때려 희생불가한 상태가 되도록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호동이'가 자신의 손과 다리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9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개를 죽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방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후 개가 다른 사람들까지 무는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갓난아이 도로변에 버린 20대 산모 검거

아기를 출산해 길거리에 버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버려진 아이는 행인에 발견돼 생명을 구했다.

전남 구례경찰서는 신생아를 출산하고 도로변에 유기한 산모 A씨(28)를 영아유기혐의로 불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9시40분쯤 구례읍 터미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신생아를 버렸다.

A씨는 이날 구례읍 터미널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검은색 비닐 봉지에 담아 유기했고, 아기를 버리는 모습은 주변 CCTV에 찍혔다.

버려질 당시 태중도 자르지 않은 상태였던 신생아는 이곳을 지나다 행인이 오후 10시26분쯤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신생아는 119에 의해 구례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다시 광주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를 발견한 행인은 "고양이 울음같은 소리가 나서 주변을 살폈고, 신생아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곧장 주변 탐문을 시작해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출산 흔적을 확인했고, 산모 A씨를 불잡았다.

A씨는 경찰에 "아이를 출산하고 너무 당황했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이 고발 '손정우' 경찰 넘겨... "범죄수익 출처 수사"

2018년 당시 확인 못한 범죄사실 추가 수사



검찰이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적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아버지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손씨의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사건을 지난 8일 경찰청 사

이버사과에 넘기고 수사지휘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14일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제범죄전담부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했다. 지난 6일 법원이 손씨의 미국 송환에 불허결정을 내리자 7일 손씨를 기소했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7~2018년 W2V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경로,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2018년 3월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거쳐 W2V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씨를 구속송치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연방대 배심은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며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법무부는 9개 혐의 중 손씨의 미국 인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자 지난 5월 손씨 아버지는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을 훼손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김민정 기자

의붓딸 학대 계부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경남 창원에서 9살 의붓딸을 학대 온 계부 A씨(35)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15일 오후 2시 35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심사를 시작한 지 3시간 35분만이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구속영장 실효심사를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출석했다.

A씨는 짙은 회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 호송차량에 내렸으며 혐의 인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을 옥조에 담가 학대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A씨는 "남의 딸로 생각해 본 적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한 점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4일 계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